

# 북간도로 떠나는 윤동주 발자취 여행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주관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기행  
시인 40명, 묘역서 추모식  
연변 작가와 시 낭송회도



윤동주 생전 모습과 북간도 명동촌 인근에 있는 윤동주 기념관.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는 윤동주 시인(1917~1945)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탄생 100년이 남다른 것은 윤동주의 순결한 나라 사랑의 시심이 여전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100년이라는 한 세기는 물리적 시간을 넘어 그 자체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동주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힐 만큼 자기성찰과 실천을 지향했던 문인이다.

윤동주 시인만큼 부끄러움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인은 없다. '참회록',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별해는 밤'에 투영된 부끄러움은 문학을 지렛대 삼아 '곡문아세(曲文阿世)의 길을 걸었던 많은 문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윤동주 시인 탄생(12.31)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시인들이 북간도 명동촌에 있는 생가와 묘지를 방문해 추모식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광주일보와 '윤동주 서시문학상'을 공동으로 제정한 계간 '시산맥'은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0여 명의 시인들이 참여해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

는 문학기행은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 육화된 의미를 되새기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 신년 기획으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진행해온 광주일보에서는 박성천 문학 담당 기자가 문학기행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제1회 윤동주 서시문학상·서시 해외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경립 시인과 미국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미희 시인과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학기행은 지난해 6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유학했던 도시사대학과 순교한 후쿠오카 형무소 방문에 이은 교차 행사로, '시산맥'은 해마다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주의 생가와 묘지를 방문해서는 간단한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윤동주는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잘못 알려져

있을 만큼, 그의 시적 위상이나 명성에 비해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관심이 없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동주 시인의 위상을 회복하고, 후배 문인들로서의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윤동주의 묘지에서는 제례와 간단한 의식이 예정돼 있다. 묵념과 헌화를 비롯한 의식과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참석한 시인들이 '서시' 등 윤동주의 작품을 낭송하고 그의 정신을 기린다.

다음으로 윤동주 시비가 있는 대성중학교를 방문한다. 윤동주 시인은 원래 은진중학교에서 공부하다 송실중학교로 편입했다. 이후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5개의 학교가 대성중학교로 통합 됐다. 대성중학교에는 윤동주 시인이 한때 공부했던 교실이 복원돼 있다.

연변시인협회와 연변작가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미자 시인과 함께하는 '중

한문인 윤동주시낭송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 시인은 2012년 한국에서 연변으로 돌아와 연변시낭송협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송 시인은 "올해는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돌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잡혀 있어 바쁘다"면서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한국의 문인들과 교감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변시인협회는 이 지역 출신 유명시인과 연변대학 조선어-한국어교수들이 고문으로 있는 문인단체다.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낭송가들이 활동한다.

문정영 시인맥 대표는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윤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그의 문학을 오래도록 기리는 데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 발레단 신진 작가전 '트리니티 V'

15일 광산문화회관

그린 발레단의 차세대 작가전 '트리니티 V'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트리니티'는 개성 넘치는 안무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그린 발레단이 2012년부터 기획해온 공연이다.

발레테 노르보예프의 '랩소디 인 블루', 강선영의 '루치아', 조가영·강병창의 '몽'이 무대에 오른다.

'랩소디 인 블루'는 재즈음악과 세 커플의 조화, '루치아'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의 처연하고 격정적인 미(美)가 감성 포인트다. '몽'은 발레 작품인 '장미의 정령'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색다른 감각을 선사한다.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며 관람료는 1000원이다. 입장권은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중이다. 문의 062-960-89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하루키 신작 발매 앞두고 30만부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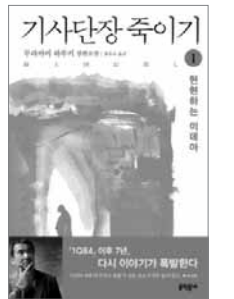
'기사단장 죽이기'

휴가철 '여름소설대전'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68)의 돌풍이 만만치 않다.

문학동네는 12일 정식 발매 예정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3쇄 5만 세트(10만 부)를 찍었다고 10일 밝혔다. 출간 전 두 차례 증쇄는 국내 문학 출판시장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하루키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학동네는 당초 10만 부를 준비하고 지난달 30일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문이 밀려들면서 이달 4일 10만 부를 더 찍었고, 이날 증쇄까지 합해 총 30만 부를 인쇄했다.

'기사단장 죽이기'는 이혼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루키 작품 패턴과 유사한 작품이다. 다만 그림을 넣고 벌어지는 사건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깊어진 하루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문학동네는 1·2권 합해 20만 부를 준비하고 출간한 '1Q84(2009)보다 초기 판매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출간한 '1Q84'는 2010년 나온 3권까지 합해 지금까지 200만 부가량 팔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 다음달까지 접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크게 이바지한 자 ▲ 문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10일부터 8월31일까지 '2017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포상 후보자는 국적과 생년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크게 이바지한 자 ▲ 문화훈장은 1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 ▲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042-481-4816. /박성천기자 skypark@

## "양성 평등한 일자리 기회를" '젠더브리프' 27호 발간

광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1위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 남성들에 비해 차별받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브리프' 제2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젠더브리프' 제27호에서 지난해 광주지역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조사한 결과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로 남성보다 15.3% 낮게 나타났다.

청년여성의 실업률은 7.2%, 남성은 9.3%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젠더브리프'는 광주지역 성 평등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1년에 6차례 총 6면씩 격월로 발간한다. /전은재기자 ej6621@

## 세계문화유산 '익산 왕궁리 유적' 오늘부터 개방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의 궁궐 담장과 후원영역을 1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武王, 재위 600~640)때 조성된 궁궐터로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왕궁리 유적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1989년부터 발굴조사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궁성과 관련된 성벽, 전각, 정원과 후원, 대형화장실 등이 조사되었고 인장 기와, 중국제 자기, 연화문 수막새 등 중요 유물이 다수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은 후원의 네모난 연못과 구불구불한 물길을 화려한 정원석으로 꾸민 조경(造景) 기법으로 유명하다. 고대 중국인 당나라와 일본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의 궁궐 정원에서 엿볼 수 있는 양식으로, 당시 백제인들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으로 활발히 교류하



왕궁리 유적 정비현황 전경.

〈문화재청 제공〉

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발굴을 통해 확인된 궁궐 담장은 안쪽과 바깥쪽을 잘 다듬어진 화강석으로 쌓아 올렸으며, 길이는 동서로 230m, 남북으로 495m(총 1454m)에 달한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잔존 높이(최고 1.2m)까지만 담장을 정비하였으며, 관광객은 담장과 함께 7개의 문지(門址)와 수구(水口), 암거배수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